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청소년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 상담 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 조사*

- 창원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Preliminary Study of the Status of School Counseling and Demands for the Service: Designed for Universities to Provide Their Local Communities with Counseling and Educational Service of Adolescence

- Focusing on middle and high schools in Changwon -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류 경 희**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
Full-Time Lecturer: Ryu, Kyung-Hee

<Abstract>

This study is preliminary study of the status of school counseling and demands for service at middle and high schools from universities to provide the youth middle and high schools in Changwon with counseling and educational servic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below. First, the excessive workload became the most difficulties for operateschool counseling systems and counseling activities. Second, school counseling activities focused mainly on the formal and narrow areas of counseling such as career guidance, personality programs and intelligence test and so on. Third, the most problems which we have counselled, were friendship problems in the personal relationship, school absences in the delinquent, lack of information of sex in the sexual field, conflicts with parents, in the family relationship, poor academic progresses in the academical and future directional problems and, character of personality difficulties in the psychological field. Fourth, the major offers from the teachers to counsel students in the school were advices, suggestions, career guidance, preventative activities, and providing information through school counseling. Fifth, though the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in need of outside institutions related to counseling, it was difficult to get help because of being ignorant of procedures or methods for using counseling and being lacking in enough information on such organizations. Sixth, ordinary students and students in danger of maladjustment besides problem students wanted to get a lot of help. Seventh, the counseling which are the most wanted from out of school was an opposite-sex relationship in the personal relationship, a lack of information on sex in the sexual fields, conflict with parents in the family problems, a strong unwillingness of study in the academical and future directional fields, and personalty difficulties in the psychological fields. Eighth, the subjects wanted to get counseling and educational service in regard to sex, addiction to PC, smoking, and ostracism and so on in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young people. Ninth, education designed to have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children turned out to be mostly needed as educational programs for parent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proposals from universities for provide youth counseling and educational services are below. 1) setting up the positive publicity strategies 2) developing and execution of various counseling and educational programs 3) expanding the counseling and education from maladjusted students to general students 4) expanding youth counseling and education to parental education and family counseling 5) continuous human resources improvement and training 6) reinforcement relationships with middle and high school organizations 7) building cooperation with local counseling organizations

▲ 주요어(Key Words): 학교상담(school counseling), 상담과 교육서비스(counseling and educational service)

* 본 논문은 2001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류경희(E-mail: ryukh@sarim.changwon.ac.kr)

1.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청소년기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적응은 그들이 밝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장하여서는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 입시 위주의 교육과 처벌 중심적인 학교 환경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유발시켜, 학생이 자신에 대한 주체적식을 바탕으로 교우,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학업을 수행하고 학교의 규범에 적절한 행위를 하며 만족하는 상태인 학교 적응을(오수연, 1999)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 적응의 어려움은 학교의 교육적 가치, 규범, 그리고 질서에 일치하는 타당한 행동을 못하거나 대인관계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놓여지게 만들어, 청소년은 불안, 절망, 소외감을 느끼며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서적 문제를 갖거나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김기태 외 9인, 1996). 더 나아가서는 학교 중도 탈락이 이루어지고, 또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 종합 상담실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고교생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53.5%(563명)가 지난 한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60.5%)이 남학생(46.6%)보다, 고등학생(61.2%)이 중학생(42.7%)보다, 실업계고교생(65.1%)이 일반계고교생(58.4%)보다 자퇴욕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01). 한국청소년 개발원의 실제 중퇴현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퇴생은 90년 1461명에서 지난해 1만 4734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중학교 중퇴생은 95년 6만 4962명(1.4%), 97년 9만 433명(2%), 99년 6만 9116명(1.7%), 2000년 6만 6046명(1.7%)으로 정학제도가 없어진 97년 이후에도 중도탈락률이 줄지 않았으며(동아일보, 2001b), 앞으로는 품행불량 등으로 퇴학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중학생은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동안 등교할 수 없는 등 문제 학생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질 전망이다(동아일보, 2001a), 등교정지 처분을 받는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예방과 등교정지 기간 동안에 그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게 되어 학교상담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표출되는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실정은 부적응 학생들을 문제학생으로 낙인찍고 무관심으로 버려 두거나, 주로 처벌을 내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왔는데, 처벌방법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 부적응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천혜숙, 1999) 자각에 의해 97년에는 정학 등 처벌 위주의 징계 대신 특별교육, 사회봉사 등 선도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동아일보, 2001b). 또한 교사들이 수업활동을 하면서 상담이나 교육에 전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무단결석, 학교 폭력, 따돌림, 부적절한 성행동, 교우관계의 어려움 등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는 더 이상 학교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학교상담에 지역사회 상담과 교육기관이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처벌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 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상담의 대상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나 부모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Schmidt, 1996)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부모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교육서비스 제공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대학은 지역과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구와 교수의 결과를 사회에 적용하여 환원하는 사회봉사기능을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과 더 나아가 청소년이 속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은 건강한 청소년과 가족의 양산을 위해 실제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미래진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질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고, 상담과 교육 관련 학문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과 가족의 문제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이다.

대학에서 상담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학문분야 중에서도 특히 가족학 분야는 청소년 문제를 가족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가족 구성원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문제라는 차원에서 상담과 교육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분야로서 지역사회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사회봉사기능 수행의 역할과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학의 가족학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어떠한 가족과 구성원에 역점을 두어 사회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느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목포대학교 소비자아동주거학과, 신라대학교 가족학과,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등에서는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에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부록 참고)

지역사회에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서도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는 일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학교에서의 청소년 상담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상담교육실을 2001년 3월에 개설하여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상담, 집단상담, 적응교육, 학교출장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중·고등학교의 상담실태와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여 더욱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리고 지역사회 요

구에 부응하는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부적응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학교 현장에 개입하여 상담과 교육 서비스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상담관련 교사들을 중심으로 일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상담실태와 지역사회 상담관련 기관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통해 대학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고, 대학이 지닌 모든 자원의 지식, 정보, 노하우, 봉사 등을 개방하여 일선 중·고등학교의 요구에 맞는 청소년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동해 나가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 상담실 운영과 활동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창원시 중·고등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과의 연계 실태 및 그 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창원시 중·고등학교의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는 어떠한가? 이다.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 셋째의 연구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청소년 상담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일선 중·고등학교에서의 상담 실태 및 문제점

학교에서의 상담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의 질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Aycock, 1989), 학교생활에서 어떤 상담서비스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미래 진로와 성장은 달라질 수 있어서 학교에서의 상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도교사제, 학생 상담 자원 봉사제, 전문상담교사 제도 등을 통해 학교상담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교도교사제도는 학교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이심봉, 2000),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 제도도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휴식 봉사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진희 외 3인, 1996). 그리고 1997년부터 채택된 전문상담교사 제도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여 교사 이외의 전문가 개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상담교사의 주 업무가 상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위해서는 수업을 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상담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이심봉, 2000).

또한 학교에서의 상담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달

시키고,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하는데 그 목표가 있으며,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를 예방해 주고 효과적인 발달을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박경애 외 2인, 1999). 이 외에도 학교에서의 상담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문이나 조정 또는 의뢰 같은 활동들이 학교상담의 기능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Borders & Drury, 1992), 우리 나라 학교상담의 기능은 주로 간편 상담이나 정보제공, 검사 같은 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박경애 외 2인, 1999).

이 밖에도 학교 상담 운영과 활동의 몇 가지 면에서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상담 서비스의 대상인 학생들보다는 제공자인 교사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상담이 학생들의 상담요구와는 관계없이 교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로 교무실이나 상담실에서 상담이 행해지고 있으며, 시간도 방과후로 한정되어 있어 방과후의 학원이나 야간자율학습이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 상황에는 학생들이 상담서비스를 받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혁 1999).

둘째, 학교상담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정방문이나 출장상담 같은 방법, 학부모나 행정가와 같은 다양한 주변체제들이 함께 학교상담에 참여하는 방법, 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이용되어야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나,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의 면접에 의존하고 있다(박경애 외 2인, 1999).

특히 발달단계상 다양한 심리사회적 혼돈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에는 그들의 문제에 사후 개입보다 예방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며(Elias, 1997), 학교는 학부모에 대한 접근도 그 어느 장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부모 참여를 통한 예방적 노력의 효과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lias & Tobias, 1996; 박현선·이상균, 1998 재인용). Kurtz & Barth(1989), 김연옥·이상균(1998)도 학교 상담에서 부모참여와 같은 학교와 가정간의 연계를 실천의 초석이라고 할만큼 가족이 동시에 개입하는 것을 중시해왔다. 따라서 학교 상담 서비스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확대되어 부모들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자녀 양육의 기술이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모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며 자녀를 위한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Turner & Streat, 1983). 청소년기 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 기반의 부모교육은 바로 전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포괄적인 학교상담 서비스로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Allen-Mearns, 1986; 박현선·이상균, 1998 재인용).

셋째, 학교 내에서 상담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인식부족과 지원의 결핍으로 상담실 운영이 어렵고, 상담교사들도 상담 업무 외에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상담시간의 확

보가 어려우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학생문화의 이해부족으로 학교상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상담실 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상담업무가 형식적인 학생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박경애 외 2인, 1999).

넷째, 학교는 지역사회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거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 기관 이용실태를 분석한 것을 보면,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상담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의 18.8%에 불과하였으며, 종교기관(51.2%), 청소년관련단체(30.4%), 시청 상담소 등 행정기관(12.1%)의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중명, 1997).

이와 같이 학교상담의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볼 때 학교는 이제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서 교사들만이 학생을 상담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상담관련 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외부 상담관련 기관의 전문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소재 중·고등학교(중학교 23개교, 일반고 12개교, 실업고 3개교)의 상담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창원시 중·고등학교에 설문조사 의뢰 협조 공문을 1차적으로 보내고, 다시 상담관련부서(진로상담부, 인성교육부, 생활지도부 등)에 직접 전화를 하여 협조요청을 하였다.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3개교 중에서 3개 학교는 실제적인 상담관련부서나 상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설문조사 협조에 거부 의사를 밝혀 20개교에만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창원시 소재 고등학교 15개교는 모두 설문문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15개교에 모두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한 학교에 7부씩 발송하여 총 245부를 발송하였으나,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3개교(일반고 10개교, 실업고 3개교) 총 29개교에서 설문지에 응답해 보내주어 총 145부(59%)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7부를 제외한 중학교 74부, 일반고 52부, 실업고 12부 총 138부(56%)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영역은 크게 학교상담실태(운영면, 활동면)와 외부기관과의 연계실태와 만족도, 외부기관에의 서비스 요구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내용의 구체적 사항들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1999년 조사한 학교 상담실태 설문지, 현장에 있는 상담교사와의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내용은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주당 개인상담 횟수, 상담장소, 상담실 운영시 어려움, 학교 상담의 수준, 상담인력의 충분성, 외부기관과의 연

계 경험 유무, 외부기관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 외부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서비스 제공방법 등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는 설문조사 시 복수 응답하도록 하여 각 문항의 하위항목의 합이 100%를 초과한다.

IV. 창원시 중·고등학교에서의 상담 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 조사결과

1. 학교상담실태

1) 운영 면

운영 면에서의 학교상담 실태로 상담장소, 상담실 운영상의 어려움, 학생들이 상담실에 오게 되는 경로, 상담인력의 충분성, 상담의 전반적 수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로는 <표2>와 같이 상담실(55.8%), 교무실(17.4%), 교실(15.9%) 순으로 많았는데, 교무실이나 교실과 같이 상담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상담실에 오게 되는 경로는 '선생님의 권유'(89.9%)가 가장 많았고, '복장 및 태도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서'(86.2%), '상담실에서 학생을 직접 호출해서'(77.5%), '학생 스스로 자발적으로'(75.4%), '복교 및 전학으로 인해 의례적으로'(60.1%) 순으로 많았다. 학생상담의 전반적 수준에 대해서는 '다소 전문적'(8.7%), '매우 전문적'(1.4%)이라고 응답해 총 10.1%가 전문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전문성 매우 부족'(12.3%), '전문성 다소 부족'(23.9%)이라고 응답해 총 36.2%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50.7%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상담인력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이다'(39.9%), '매우 부족하다'(15.9%)로 총 55.8%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충분하다'(1.4%), '충분한 편이다'(10.1%)로 총 11.5%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4%는 '그저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학교에서의 상담은 주로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에의 전문성과 상담인력의 충분성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과 같이 상담실 운영상의 어려움은 '상담실 이외 과중한 업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 '열악한 상담실 환경', '학교 내 상담실에 대한 지원과 관심부족', '일반교사들의 상담실에 대한 인식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과중한 수업이나 행정 등의 업무가 청소년들을 상담, 지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생들의 상담에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한 것은 상담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문제 학생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학교 상담실 운영 면 실태 <단위:N(%)>

변인	범주	N(%)
상담장소 (N=136)	상담실	77(55.8)
	교무실	24(17.4)
	교실	22(15.9)
	기타: 학년실, 복도, 학부모실 등	13(9.3)
*학생들이 상담실에 오게 되는 경로	학생 스스로 자발적으로	104(75.4)
	복교 및 진학으로 인해 의례적으로	83(60.1)
	진학상담의 권유로	124(89.9)
	복장 및 태도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상담실에서 학생을 직접 호출해서	119(86.2) 107(77.5)
학생상담의 전반적 수준 (N=134)	전문성 매우 부족	17(12.3)
	전문성 다소 부족	33(23.9)
	보통	70(50.7)
	다소 전문적	12(8.7)
	매우 전문적	2(1.4)
상담인력의 충분성 (N=135)	매우 충분하다	2(1.4)
	충분한 편이다	14(10.1)
	그저 그렇다	42(30.4)
	부족한 편이다	55(39.9)
	매우 부족하다	22(15.9)

참고) 무응답자가 있어 사례수가 다름 * 복수응답 문항

<표 3> 학교 상담실 운영상의 어려움

변인	범주	N	M	SD
상담실 운영상의 어려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부족	130	3.86	1.18
	일반교사들의 상담실에 대한 인식부족	128	3.10	1.16
	상담실 이외 파종한 업무	130	3.95	1.22
	열악한 상담실 환경	129	3.59	1.36
	학교 내 상담실에 대한 지원과 관심부족	128	3.36	1.25

참고) 무응답자가 있어 사례수가 다름. 상담실 운영상의 어려움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하였다.

2) 활동 면

활동 면에서 학교 상담 실태로는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및 교육, 검사 등의 상담활동과 대인관계영역, 비행영역, 성영역, 가정문제 영역,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 심리적 문제 영역 등에서의 상담내용, 주당 개인 상담 횟수, 상담 진행 시 어려운 점, 상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등을 조사하였다.

상담활동으로는 <표 4>와 같이 개인상담에서 진로지도(66.7%)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리상담(50.7%), 정보제공(32.6%)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프로그램 및 교육은 심성프로그램(50%), 진로탐색 프로그램(41.3%), 성교육 프로그램(31.9%), 금연 프로그램(17.4%), 취업 및 정보제공(15.2%)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지능검사(63.8%), 진로적성검사(60.9%), 성격검사(31.2%), 직업흥미검사(29.7%), 학습진단검사(8.0%), 진로탐색검사(6.5%) 순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개인상담에서는 ①진로지도(60.8%), ②심리상담(52.7%) ③정보제공(24.3%)으로 나타났고, 집단 프로그램 및 교육에서는 ①심성프로그램(48.6%), ②성교육 프로그램(36.5%), ③진로탐색 프로그램(32.4%), ④금연 프로그램(16.2%), ⑤취업 및 정보제공(9.5%)으로 나타났다. 검사에서는 ①지능검사(73%), ②진로적성검사(50%), ③성격검사(24.3%), ④직업흥미검사(16.2%)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개인상담에서 ①진로지도(73.4%), ②심리상담(48.4%), ③정보제공(42.2%)로 나타났고, 집단 프로그램 및 교육에서는 ① 심성프로그램(51.6%), 진로탐색 프로그램(51.6%), ②성교육 프로그램(26.6%), ③취업 및 정보제공(21.9%), ④금연 프로그램(18.8%)로 나타났다. 검사에서는 ①진로적성검사(73.4%), ②지능검사(53.1%), ③직업흥미검사(45.3%), ④성격검사(39.1%)로 나타났다. 일반고의 경우 개인상담에서 ①진로지도(75%), ②심리상담(48.1%), ③정보제공(44.2%)로 나타났고, 집단 프로그램 및 교육에서는 ① 심성프로그램(53.8%), 진로탐색 프로그램(53.8%), ②성교육 프로그램(25%), 취업 및 정보제공(25%), ③금연프로그램(15.4%)로 나타났다. 검사에서는 ①진로적성검사(75%), ②지능검사(61.5%), ③성격검사(44.2%), ④직업흥미검사(40.4%)로 나타났다. 실업고의 경우 개인상담에서 ①진로지도(66.7%), ②심리상담(50%), ③정보제공(33.3%)로 나타났고, 집단 프로그램 및 교육에서는 ① 심성프로그램(41.7%), 진로탐색 프로그램(41.7%), ②금연 프로그램(33.3%), 성교육 프로그램(33.3%), ③취업 및 정보제공(8.3%)로 나타났다. 검사에서는 ①진로적성검사(66.7%), 직업흥미검사(66.7%) ②진로탐색검사(25%), ③지능검사(16.7%), 성격검사(16.7%)로 나타났다.

<표 4> 학교상담활동 <단위:N(%)>

변인	범주	중학교 (N=74)	고등학교			중+고 (N=138)
			일반고 (N=52)	실업고 (N=12)	일반+실업 (N=64)	
* 개인 상담	심리상담	39(52.7)	25(48.1)	6(50)	31(48.4)	70(50.7)
	진로지도	45(60.8)	39(75)	8(66.7)	47(73.4)	92(66.7)
	정보제공	18(24.3)	23(44.2)	4(33.3)	27(42.2)	45(32.6)
* 집단 프로그램 및 교육	심성프로그램	36(48.6)	28(53.8)	5(41.7)	33(51.6)	69(50)
	진로탐색 프로그램	24(32.4)	28(53.8)	5(41.7)	33(51.6)	57(41.3)
	금연프로그램	12(16.2)	8(15.4)	4(33.3)	12(18.8)	24(17.4)
	성교육 프로그램	27(36.5)	13(25)	4(33.3)	17(26.6)	44(31.9)
	취업 및 정보제공	7(9.5)	13(25)	1(8.3)	14(21.9)	21(15.2)
	지능검사	54(73)	32(61.5)	2(16.7)	34(53.1)	88(63.8)
	성격검사	18(24.3)	23(44.2)	2(16.7)	25(39.1)	43(31.2)
* 검사	진로적성 검사	37(50)	39(75)	8(66.7)	47(73.4)	84(60.9)
	진로탐색 검사	5(6.8)	1(1.9)	3(25)	4(6.3)	9(6.5)
	직업흥미 검사	12(16.2)	21(40.4)	8(66.7)	29(45.3)	41(29.7)
	학습진단 검사	3(4.1)	8(15.4)	0(0)	8(12.5)	11(8.0)

* 복수응답 문항

즉 진로지도를 위한 개인상담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집단 프로그램 및 교육에서는 심성프로그램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검사에서는 지능검사, 진로적성검사 등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의 상담활동은 개인상담, 집단 프로그램 및 교육, 검사활동 모두에서 주로 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5>에서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영역에서는 친구문제(97.1%), 이성(87.7), 집단따돌림(79.7%), 선후배(61.6%), 교사(48.6%)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무단결석(85.5%), 폭력(82.6%), 가출(80.4%), 흡연(76.1%), 도박(40.6%), 음주(39.9%), 약물(26.1%)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성 지식의 부재(64.5%), 성충동(47.1%), 성폭행(44.2%), 자위행위(31.2%), 임신(29.7%), 강간(13.8%)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부모와의 갈등(90.6%), 과잉기대 부모(72.5%), 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64.5%), 부

모의 재혼으로 인한 갈등(57.2%), 경제적 빈곤(56.5%), 관심 없는 부모(50.7%), 폭력부모(49.3%), 형제간 갈등(43.5%)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성적부진(91.3%),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80.4%), 진학(79.7%), 공부하기가 싫다(76.1%),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71.7%), 취업(40.6%) 순으로, 심리적 문제영역에서는 성격장애(73.9%), 불안(65.2%), 행동장애(62.3%), 우울(59.4%), 자살충동(25.4%), 정신질환(22.5%) 순으로 상담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대인관계영역에서는 ①친구문제(95.9%), ②집단따돌림(89.2%), ③이성(86.5%), ④선후배(51.4%)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①폭력(87.8%), ②무단결석(81.1%), ③가출(74.3%), ④흡연(60.8%)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①성 지식의 부재(60.8%), ②성충동(41.9%), ③성폭행(33.8%), ④임신(28.4%)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①부모와의 갈등(87.8%), ②과잉기대 부모

<표 5> 상담내용 실태<단위:N(%)>

변인	범주	중학교 (N=74)	고등학교			중+고 (N=138)	
			일반고 (N=52)	실업고 (N=12)	일반+실업 (N=64)		
상담내용	*대인관계 영역	친구문제	71(95.9)	52(100)	11(91.7)	63(98.4)	134(97.1)
		이성	64(86.5)	48(92.3)	9(75)	57(89.1)	121(87.7)
		집단따돌림(왕따)	66(89.2)	35(67.3)	9(75)	44(68.8)	110(79.7)
		교사	31(41.9)	26(50)	10(83.3)	36(56.3)	67(48.6)
		선후배	38(51.4)	37(71.2)	10(83.3)	47(73.4)	85(61.6)
	*비행영역	가출	55(74.3)	45(86.5)	11(91.7)	56(87.5)	111(80.4)
		무단결석	60(81.1)	47(90.4)	11(91.7)	58(90.6)	118(85.5)
		폭력	65(87.8)	38(73.1)	11(91.7)	49(76.6)	114(82.6)
		흡연	45(60.8)	48(92.3)	12(100)	60(93.8)	105(76.1)
		약물(본드 등)	21(28.4)	12(23.1)	3(25)	15(23.4)	36(26.1)
		도박(절도)	29(39.2)	23(44.2)	4(33.3)	27(42.2)	56(40.6)
		음주	24(32.4)	26(50)	5(41.7)	31(48.4)	55(39.9)
	*성영역	임신	21(28.4)	16(30.8)	4(33.3)	20(31.3)	41(29.7)
		성폭행(성추행, 강간 등)	25(33.8)	27(51.9)	9(75)	36(56.3)	61(44.2)
		자위행위	19(25.7)	22(42.3)	2(16.7)	24(37.5)	43(31.2)
		성 지식의 부재	45(60.8)	36(69.2)	8(66.7)	44(68.8)	89(64.5)
		성충동	31(41.9)	29(55.8)	5(41.7)	34(53.1)	65(47.1)
		강간	7(9.5)	10(19.2)	2(16.7)	12(18.8)	19(13.8)
	*가정문제 영역	부모와의 갈등	65(87.8)	50(96.2)	10(83.3)	60(93.8)	125(90.6)
		형제간 갈등	35(47.3)	21(40.4)	4(33.3)	25(39.1)	60(43.5)
폭력 부모		36(48.6)	26(50)	6(50)	32(50)	68(49.3)	
과잉기대 부모		50(67.6)	43(82.7)	7(58.3)	50(78.1)	100(72.5)	
관심없는 부모		34(45.9)	30(57.7)	6(50)	36(56.3)	70(50.7)	
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		45(60.8)	35(67.3)	9(75)	44(68.8)	89(64.5)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갈등		42(56.8)	33(63.5)	4(33.3)	37(57.8)	79(57.2)	
경제적 빈곤		34(45.9)	37(71.2)	7(58.3)	44(68.8)	78(56.5)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	성적부진	71(95.9)	51(98.1)	4(33.3)	55(85.9)	126(91.3)	
	진학	51(68.9)	48(92.3)	11(91.7)	59(92.2)	110(79.7)	
	취업	20(27)	24(46.2)	12(100)	36(56.3)	56(40.6)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60(81.1)	47(90.4)	4(33.3)	51(79.7)	111(80.4)	
	공부하기가 싫다	56(75.7)	41(78.8)	8(66.7)	49(76.6)	105(76.1)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55(74.3)	40(76.9)	4(33.3)	44(68.8)	99(71.7)	
*심리적 문제 영역	우울	37(50)	38(73.1)	7(58.3)	45(70.3)	82(59.4)	
	불안	45(60.8)	40(76.9)	5(41.7)	45(70.3)	90(65.2)	
	행동장애	52(70.3)	28(53.8)	6(50)	34(53.1)	86(62.3)	
	성격장애	61(82.4)	1(1.9)	6(50)	1(1.6)	102(73.9)	
	정신질환	15(20.3)	1(1.9)	4(33.3)	1(1.6)	31(22.5)	
	자살충동	18(24.3)	1(1.9)	3(25)	1(1.6)	35(25.4)	

* 복수응답 문항

(67.6%), ③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60.8%), ④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갈등(56.8%)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①성적부진(95.9%), ②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81.1%), ③공부하기가 싫다(75.7%), ④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74.3%) 순으로, 심리적 문제영역에서는 ①성격장애(82.4%), ②행동장애(70.3%), ③불안(60.8%), ④우울(50%) 순으로 상담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인관계영역에서는 ①친구문제(98.4%), ②이성(89.1%), ③선후배(73.4%), ④집단따돌림(68.8%)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①흡연(93.8%), ②무단결석(90.6%), ③가출(87.5%), ④폭력(76.6%)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①성 지식의 부재(68.8%), ②성폭행(56.3%), ③성충동(53.1%), ④자위행위(37.5%)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①부모와의 갈등(93.8%), ②과잉기대 부모(78.1%), ③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68.8%), 경제적 빈곤(68.8%)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①진학(92.2%), ②성적부진(85.9%), ③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79.7%), ④공부하기가 싫다(76.6%) 순으로, 심리적 문제영역에서는 ①우울(70.3), 불안(70.3%) ②행동장애(53.1%) 순으로 상담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의 경우 대인관계영역에서는 ①친구문제(100%), ②이성(92.3%), ③선후배(71.2%), ④집단따돌림(67.3%)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①흡연(92.3%), ②무단결석(90.4%), ③가출(86.5%), ④폭력(73.1%)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①성 지식의 부재(69.2%), ②성충동(55.8%), ③성폭행(51.9%), ④자위행위(42.3%)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①부모와의 갈등(96.2%), ②과잉기대 부모(82.7%), ③경제적 빈곤(71.2%) ④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67.3%)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영역에서는 ①성적부진(98.1%) ②진학(92.3%), ③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90.4%), ④공부하기가 싫다(78.8%) 순으로, 심리적 문제영역에서는 ①불안(76.9%), ②우울(73.1%), ③행동장애(53.8%) 순으로 상담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고의 경우 대인관계영역에서는 ①친구문제(91.7%), ②교사(83.3%), ③선후배(83.3%)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①흡연(100%), ②가출(91.7%), 무단결석(91.7%), 폭력(91.7%)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①성폭행(75%) ②성지식의 부재(66.7%), ③성충동(41.7%), ④임신(33.3%)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①부모와의 갈등(83.3%), ②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75%), ③과잉기대부모(58.3%), 경제적 빈곤(58.3%)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영역에서는 ①취업(100%) ②진학(91.7%), ③공부하기가 싫다(66.7%) 순으로, 심리적 문제영역에서는 ①우울(58.3%), ②행동장애(50%), 성격장애(50%) 순으로 상담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영역에서 친구문제는 중/고, 실업고/일반고 모두에서 많이 상담되어 지고 있는 내용이었고, 비행영역에서는 무단결석으로 많이 상담이 되어졌으나, 중학교에서는 특히 폭력이,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흡연이 많이 상담되어지고 있다. 성영역에서는 성 지식의 부재로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실업고

에서는 성폭행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족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상담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성적부진으로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고,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진학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다. 심리적 문제 영역에서는 성격장애로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우울, 불안이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6>과 같이 주당 개인 상담 횟수는 거의 못한다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9.9%는 1~2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활동 시 어려운 점으로는 수업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상담하기 어렵다(82.6%), 어느 정도까지 학생을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겠다(63%), 상담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57.2%), 상담시설이나 프로그램 미비(55.1%), 상담관련 교사 수 부족(47.1%),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47.1%) 순으로 나타나, 상담실 운영이나 상담활동 모두에 있어서 교사의 수업과 과도한 행정업무가 학교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을 알 수 있다. 상담교사로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충고·조언(91.3%), 문제행동 예방활동(69.6%), 진로지도(65.2%), 정보제공 중심의 면담(58%), 집단상담 활동 및 집단 교육 실시(55.8%), 심리상태와 행동변화를 위한 심층적 면담(47.8%), 학생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41.3), 심리검사(3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주당 개인 상담 횟수, 상담 시 어려운 점, 상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등의 실태 <단위:N(%)>

변인	범주	빈도(%)
주당 개인 상담횟수 (N=138)	1~2회	55(39.9)
	3~4회	15(10.9)
	5회 이상	10(7.2)
	거의 못한다	58(42)
*상담 시 어려운 점	상담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 부족	79(57.2)
	상담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협조 부족	27(19.6)
	상담활동에 대한 학교행정의 인식부족	42(30.4)
	어느 정도까지 학생을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87(63)
	상담시설이나 프로그램 미비	76(55.1)
	도움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와 지식 부족	56(40.6)
	수업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상담하기 어렵다	114(82.6)
상담관련 교사 수 부족	65(47.1)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	65(47.1)	
*상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정보제공 중심의 면담	80(58)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고·조언	126(91.3)
	심리상태와 행동변화를 위한 심층적 면담	66(47.8)
	심리검사 실시	54(39.1)
	집단상담 활동 및 집단 교육 실시	77(55.8)
	학생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	57(41.3)
	진로지도	90(65.2)
문제 행동 예방 활동	96(69.6)	

* 복수응답 문항

2 외부기관과의 연계실태와 만족도

<표 7>과 같이 외부기관과의 연계경험 유무, 도움 받는 기관, 외부기관으로부터 도움 받는 내용, 외부기관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외부기관과의 연계경험 유무에서 50%가 연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48.6%는 연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있는 경우 주로 어머니 자원봉사단(25.4%), 사회단체(20.3%), 시·군·구 청소년상담실(18.8%) 등으로 국한되어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실제적인 지역사회 기관이 아닌 어머니 자원봉사단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2%, 만족 26.8%, 그저 그렇다가 15.2%, 불만족 0%, 매우 불만족 0.7%로 나타나 불만족(0.7%)하기보다는 만족(2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 불충분'(76.8%)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관련 기관 이용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64.5%), '지역 내 협조를 주고받을 만한 관련기관이 없어서'(39.1%),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을 노력을 하지 않아서'(37%), '관련기관의

<표 7> 외부기관과의 연계실태와 만족도 <단위:N(%)>

변인	범주	빈도(%)
외부기관과의 연계 경험 유무 (N=136)	있다	69(50)
	없다	67(48.6)
*연계경험이 있었던 외부기관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26(18.8)
	사회복지관	5(3.6)
	어머니 자원봉사단	35(25.4)
	개인 클리닉	4(2.9)
	종합병원	0(0)
	보건소(보건원)	3(2.2)
	사회단체(YMCA,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 등)	28(20.3)
	청소년 쉼터	6(4.3)
	교육청	1(0.7)
	종교단체	3(2.2)
외부기관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 (N=62)	매우 불만족	1(0.7)
	불만족	0(0)
	그저 그렇다	21(15.2)
	만족	37(26.8)
	매우 만족	3(2.2)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유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 불충분	106(76.8)
	지역 내 협조를 주고 받을만한 관련기관이 없어서	54(39.1)
	관련기관이용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89(64.5)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을 노력을 하지 않아서	51(37)
	관련기관의 비협조적 태도	27(19.6)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는데 학교 행정가의 인식이 부족해서	51(37)
외부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N=136)	전혀 필요 없다	0(0)
	별로 필요 없다	2(1.4)
	다소 필요하다	67(48.6)
	매우 필요하다	67(48.6)

* 복수응답 문항

도움을 받는데 학교 행정가의 인식이 부족해서'(37%), '관련기관의 비협조적 태도'(19.6%) 순으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역사회 관련기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기관의 도움은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가 각각 48.6%로 97.2%가 연계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연계와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3. 외부기관에의 서비스 요구도

외부기관에의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외부상담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도움 받고 싶은 상담내용, 도움 받고 싶은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요구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기대 등을 조사하였다.

<표 8>과 같이 외부 상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정서적 우울감, 학습의욕 상실,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갈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 받고 싶다'가 85.5%로 가장 높았고,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으나, 부적응의 위험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67.4%), '징계처분을 받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65.9%), '자퇴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복학 후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58.7%), '앞으로 부활되는 등교정지제로 등교정지처분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55.1%), '재(편)입학 후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50%)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부적응 학생들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은 아니나 기타 이유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예방차원에서 부적응의 위험소지가 보이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8> 외부 상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단위:N(%)>

변인	범주	빈도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① 징계처분을 받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91(65.9)
	② 재(편)입학 후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69(50)
	③ 자퇴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복학 후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81(58.7)
	④ 앞으로 부활되는 등교정지제로 등교정지처분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76(55.1)
	⑤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으나 부적응의 위험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93(67.4)
	⑥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정서적 우울감, 학습의욕 상실,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갈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118(85.5)

* 복수응답 문항

<표 9>와 같이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고 싶은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영역에서는 이성관계(83.3%), 집단 따돌림(79%), 친구문제(68.8%), 교사(40.6%), 선후배(38.4%)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가출(79%), 흡연(76.8%), 폭력(76.1%), 무단결석(68.1%), 도벽(48.6%), 약물(44.2%), 음주(39.1%)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성지식의 부재(78.3%), 성폭행(65.9%), 성충동(60.9%), 임신(51.4%), 자위행위(48.6%), 강간(37.7%)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부모와의 갈등(73.2%),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갈등(65.9%), 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62.3%), 과잉기대 부모(59.4%), 폭력부모(58.7%), 경제적 빈곤(51.4%), 관심 없는 부모(45.7%), 형제간 갈등(31.9%) 순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문제가 있을 때 학교의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지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가족 즉, 재혼가족, 편부/편모가족의 학생들을 상담하기 어려워 도움을 받

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공부하기가 싫다(71%), 성적부진(67.4%), 진학(65.2%),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64.5%),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52.2%), 취업(47.1%)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였고, 심리적 문제 영역에서는 성격장애(76.8%), 행동장애(68.1%), 불안(62.3%), 우울(58%), 정신질환(39.1%), 자살충동(34.1%) 순으로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대인관계영역에서 ①이성관계(82.4%), ②집단따돌림(75.7%), ③친구문제(66.2%), ④선후배(39.2%)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①폭력(83.8%), ②가출(78.4%), ③흡연(70.3%), ④무단결석(67.6%)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①성지식의 부재(77%), ②성폭행(64.9%), ③성충동(59.5%), ④임신(55.4%)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①부모와의 갈등(67.6%), ②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갈등(63.5%), ③과잉기대 부모(59.5%), ④폭력부모(58.1%)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①공부하기가 싫다(70.3%),

<표 9> 외부기관에 도움 받고 싶은 상담내용<단위:N(%)>

변인	범주	중학교 (N=74)	고등학교			중+고 (N=138)
			일반고 (N=52)	실업고 (N=12)	일반+실업 (N=64)	
*대인관계영역	친구문제	49(66.2)	39(75)	7(58.3)	46(71.9)	95(68.8)
	이성	61(82.4)	47(90.4)	7(58.3)	54(84.4)	115(83.3)
	집단따돌림(왕따)	56(75.7)	45(86.5)	8(66.7)	53(82.8)	109(79)
	교사	24(32.4)	26(50)	6(50)	32(50)	56(40.6)
	선후배	29(39.2)	20(38.5)	4(33.3)	24(37.5)	53(38.4)
*비행영역	가출	58(78.4)	40(76.9)	11(91.7)	51(79.7)	109(79)
	무단결석	50(67.6)	35(67.3)	9(75)	44(68.8)	94(68.1)
	폭력	62(83.8)	34(65.4)	9(75)	43(67.2)	105(76.1)
	흡연	52(70.3)	44(84.6)	10(83.3)	54(84.4)	106(76.8)
	약물(본드 등)	32(43.2)	26(50)	3(25)	29(45.3)	61(44.2)
	도벽(절도)	39(52.7)	25(48.1)	3(25)	28(43.8)	67(48.6)
	음주	32(43.2)	18(34.6)	4(33.3)	22(34.4)	54(39.1)
*성영역	임신	41(55.4)	26(50)	4(33.3)	30(46.9)	71(51.4)
	성폭행(성추행, 강간 등)	48(64.9)	36(69.2)	7(58.3)	43(67.2)	91(65.9)
	자위행위	38(51.4)	25(48.1)	4(33.3)	29(45.3)	67(48.6)
	성지식의 부재	57(77)	40(76.9)	11(91.7)	51(79.7)	108(78.3)
	성충동	44(59.5)	30(57.7)	10(83.3)	40(62.5)	84(60.9)
	강간	23(31.1)	24(46.2)	5(41.7)	29(45.3)	52(37.7)
*가정문제영역	부모와의 갈등	50(67.6)	42(80.8)	9(75)	51(79.7)	101(73.2)
	형제간 갈등	21(28.4)	20(38.5)	3(25)	23(35.9)	44(31.9)
	폭력 부모	43(58.1)	34(65.4)	4(33.3)	38(59.4)	81(58.7)
	과잉기대 부모	44(59.5)	36(69.2)	2(16.7)	38(59.4)	82(59.4)
	관심없는 부모	33(44.6)	24(46.2)	6(50)	30(46.9)	63(45.7)
	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	41(55.4)	35(67.3)	10(83.3)	45(70.3)	86(62.3)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갈등	47(63.5)	36(69.2)	8(66.7)	44(68.8)	91(65.9)
	경제적 빈곤	34(45.9)	30(57.7)	7(58.3)	37(57.8)	71(51.4)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	성적부진	51(68.9)	37(71.2)	5(41.7)	42(65.6)	93(67.4)
	진학	43(58.1)	37(71.2)	10(83.3)	47(73.4)	90(65.2)
	취업	26(35.1)	30(57.7)	9(75)	39(60.9)	65(47.1)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49(66.2)	37(71.2)	3(25)	40(62.5)	89(64.5)
	공부하기가 싫다	52(70.3)	38(73.1)	8(66.7)	46(71.9)	98(71)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39(52.7)	28(53.8)	5(41.7)	33(51.6)	72(52.2)
*심리적 문제 영역	우울	39(52.7)	35(67.3)	6(50)	41(64.1)	80(58)
	불안	44(59.5)	34(65.4)	8(66.7)	42(65.6)	86(62.3)
	행동장애	55(74.3)	32(61.5)	7(58.3)	39(60.9)	94(68.1)
	성격장애	58(78.4)	42(80.8)	6(50)	48(75)	106(76.8)
	정신질환	1(1.4)	25(48.1)	2(16.7)	27(42.2)	54(39.1)
	자살충동	1(1.4)	23(44.2)	1(8.3)	24(37.5)	47(34.1)

* 복수응답 문항

②성적부진(68.9%), ③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66.2%), ④진학(58.1%) 순으로, 심리적 문제 영역에서는 ①성격장애(78.4%), ②행동장애(74.3%), ③불안(59.5%), ④우울(52.7%)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는 대인관계영역에서 ①이성관계(84.4%), ②집단 따돌림(82.8%), ③친구문제(71.9%), ④교사(50%)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①흡연(84.4%), ②가출(79.7%), ③무단결석(68.8%), ④폭력(67.2%)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①성지식의 부재(79.7%), ②성폭행(67.2%), ③성충동(62.5%), ④자위행위(45.3%), 강간(45.3%)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①부모와의 갈등(79.7%), ②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70.3), ③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갈등(68.8%), ④폭력부모(59.4%), 과잉기대 부모(59.4%)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①진학(73.4%), ②공부하기가 싫다(71.9%), ③성적부진(65.6%), ④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62.5%) 순으로, 심리적 문제 영역에서는 ①성격장애(75%), ②불안(65.6%), ③우울(64.1%), ④행동장애(60.9%)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에서는 대인관계영역에서 ①이성관계(90.4%), ②집단따돌림(86.5%), ③친구문제(75%), ④교사(50%)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①흡연(84.6%), ②가출(76.9%), ③무단결석(67.3%), ④폭력(65.4%)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①성지식의 부재(76.9%), ②성폭행(69.2%), ③성충동(57.7%), ④임신(50%)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①부모와의 갈등(80.8%), ②과잉기대 부모(69.2),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갈등(69.2%), ③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67.3%)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①공부하기가 싫다(73.1%), ②성적부진(71.2%), 진학(71.2%),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71.2%) 순으로, 심리적 문제 영역에서는 ①성격장애(80.8%), ②우울(67.3%), ③불안(65.4%), ④행동장애(61.5%)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고에서는 대인관계영역에서 ①집단따돌림(66.7%), ②친구문제(58.8%), 이성(58.8%) ③교사(50%)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①가출(91.7%), ②흡연(83.3%), ③무단결석(75%), 폭력(75%)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①성지식의 부재(91.7%), ②성충동(83.3%), ③성폭행(58.3%), ④강간(41.7%)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①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83.3%), ②부모와의 갈등(75%), ③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갈등(66.7%), ④경제적 빈곤(58.3%)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①진학(83.3%), ②취업(75%), ③공부하기가 싫다(66.7%), ④성적부진(41.7%),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41.7%) 순으로, 심리적 문제 영역에서는 ①불안(66.7%), ②행동장애(58.3%), ③우울(50%), 성격장애(50%)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친구, 교사, 선후배와의 관계보다도 '이성관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도움 받고 싶어하였고, 특히 실업고에서는 '집단따돌림'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영역에서는 중학교에서는 '폭력'이 고등학교에서는 '흡연'이, 특히 실업고에서는 '가출'이 가장 도움 받고 싶어하

는 내용이었다. 성영역에서는 '성지식의 부재'를 가장 도움 받고 싶어하였고,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부모와의 갈등' 문제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어했으며, 특히 실업고에서는 '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도움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중학교와 일반고에서 '공부하기가 싫다'가, 실업고에서는 '진학' 상담을 가장 도움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문제 영역에서는 중학교는 '행동장애'를 고등학교는 '성격장애'를 실업고는 '불안'에 대한 상담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어하였다.

또한 <표 10>과 같이 외부 기관에 도움을 받고 싶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는 성교육 프로그램(68.1%), PC 중독 예방 프로그램(65.9%), 흡연예방 금연 프로그램(62.3%), 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60.9%), 좋은 친구 되어주기 프로그램(60.1%), 진로탐색 프로그램(58%),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58%), 품행장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55.8%), 학습능력 향상 공부 프로그램(53.6%), 또래 상담자 양성 프로그램(43.5%)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급 대상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교육(72.5%), 진로탐색 교육(68.8%), PC 중독 예방 교육(67.4%),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65.9%),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교육(65.9%), 흡연예방 교육(63.8%), MBTI 검사를 통한 교육(50.7%)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였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자녀 이해하기 교육(87%), 자녀 흡연·음주 예방 지도 교육(73.2%), 자녀 진로지도 교육(71.7%), 자녀 성교육 지도 교육(71%), 자녀학습지도 교육(70.3%), 자녀 인터넷 사용지도 교육(54.3%)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①PC 중독 예방 프로그램(73%), ②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70.3%), ③품행장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62.2%), ④성교육 프로그램(59.5%),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59.5%) 순으로, 한 학급 대상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① PC 중독 예방 교육(73%), ②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70.3%), ③성교육(68.9%), ④진로탐색교육(63.5%) 순으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①자녀이해하기 교육(90.5%), ②자녀학습지도 교육(73%), ③자녀 성교육 지도 교육(70.3%), ④자녀 진로지도 교육(68.9%)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①성교육 프로그램(78.1%), ②흡연 예방 금연 프로그램(75%), ③진로탐색 프로그램(70.3%), ④좋은 친구 되어주기 프로그램(62.5%) 순으로, 한 학급 대상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①성교육(76.6%), ②진로탐색교육(75%), ③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교육(70.3%), 흡연예방교육(70.3%) 순으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①자녀이해하기 교육(82.8%), ②자녀흡연·음주 예방 지도 교육(79.7%), ③자녀진로지도 교육(75%), ④자녀 성교육 지도 교육(71.9%)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에서는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①성교육 프로그

<표 10>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프로그램<단위:N(%)>

변인	범주	중학교 (N=74)	고등학교			중+고 (N=138)
			일반고 (N=52)	실업고 (N=12)	일반+실업 (N=64)	
*청소년 집단상담프로그램	학습능력 향상 공부 프로그램	37(50)	32(61.5)	5(41.7)	37(57.8)	74(53.6)
	좋은 친구 되어주기 프로그램	43(58.1)	33(63.5)	7(58.3)	40(62.5)	83(60.1)
	흡연예방 금연 프로그램	38(51.4)	39(75)	9(75)	48(75)	86(62.3)
	진로탐색 프로그램	35(47.3)	37(71.2)	8(66.7)	45(70.3)	80(58)
	성(性) 프로그램	44(59.5)	40(76.9)	10(83.3)	50(78.1)	94(68.1)
	또래 상담자 양성 프로그램	27(36.5)	27(51.9)	6(50)	33(51.6)	60(43.5)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44(59.5)	28(53.8)	8(66.7)	36(56.3)	80(58)
	PC 중독 예방 프로그램	53(71.6)	32(61.5)	6(50)	38(59.4)	91(65.9)
	품행장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46(62.2)	23(44.2)	8(66.7)	31(48.4)	77(55.8)
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52(70.3)	25(48.1)	7(58.3)	32(50)	84(60.9)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한 학급 대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교육	46(62.2)	40(76.9)	5(41.7)	45(70.3)	91(65.9)
	흡연 예방 교육	43(58.1)	35(67.3)	10(83.3)	45(70.3)	88(63.8)
	진로탐색 교육	47(63.5)	40(76.9)	8(66.7)	48(75)	95(68.8)
	성교육	51(68.9)	39(75)	10(83.3)	49(76.6)	100(72.5)
	PC 중독 예방 교육	54(73)	34(65.4)	5(41.7)	39(60.9)	93(67.4)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	52(70.3)	35(67.3)	4(33.3)	39(60.9)	91(65.9)
	MBTI(성격유형검사)교육	42(56.8)	24(46.2)	4(33.3)	28(43.8)	70(50.7)
	자녀학습지도 교육	54(73)	38(73.1)	5(41.7)	1(1.6)	97(70.3)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자녀 성교육 지도 교육	52(70.3)	37(71.2)	9(75)	46(71.9)	98(71)
	자녀 진로지도 교육	51(68.9)	40(76.9)	8(66.7)	48(75)	99(71.7)
	자녀 인터넷 사용 지도 교육	48(64.9)	24(46.2)	3(25)	27(42.2)	75(54.3)
	자녀 이해하기 교육	67(90.5)	44(84.6)	9(75)	53(82.8)	120(87)
	자녀흡연·음주 예방 지도 교육	50(67.6)	41(78.8)	10(83.3)	51(79.7)	101(73.2)

* 복수응답 문항

램(76.9%), ②흡연 예방 금연 프로그램(75%), ③진로탐색 프로그램(71.2%), ④좋은 친구 되어주기 프로그램(63.5%) 순으로, 한 학급 대상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①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교육(76.9%), 진로탐색교육(76.9%), ②성교육(75%), ③흡연 예방 교육(67.3%),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67.3%) 순으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①자녀이해하기 교육(84.6%), ②자녀흡연·음주 예방 지도 교육(78.8%), ③자녀진로지도 교육(76.9%), ④자녀 학습지도 교육(73.1%)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고에서는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①성교육 프로그램(83.3%), ②흡연예방 금연 프로그램(75%), ③진로탐색 프로그램(66.7%),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66.7%), 품행장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66.7%) 순으로, 한 학급 대상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①흡연 예방 교육(83.3%), 성교육(83.3%), ②진로탐색교육(66.7%), ③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교육(41.7%), PC 중독 예방 교육(41.7%) 순으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①자녀흡연·음주 예방 지도 교육(83.3%), ②자녀 성교육 지도 교육(75%), 자녀 이해하기 교육(75%) ③자녀진로지도 교육(66.7%)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을 가장 받고 싶어하였고, 중학교에서는 특히 PC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가장 받고 싶어하였다. 한 학급 대상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성교육을 가장 받고 싶어하였으며, 특히 중학교에서는 PC 중독 예방 교육을, 일반고에서는 '학습능

력 향상을 위한 학습교육'이나 '진로탐색 교육'을, 실업고에서는 흡연 예방 교육, 성교육을 가장 도움 받고 싶어하였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녀 이해하기 교육'을 가장 도움 받고 싶어했으며, 특히 실업고에서는 '자녀흡연·음주 예방지도 교육'을 가장 도움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1>과 같이 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는 면접상담 또는 집단상담 및 교육 시 학생들을 외부기관에 보내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자가 학교로 출장을 나와 일정시간 머물면서 학생들을 상담 및 교육해 주길 더 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학생관리가 어렵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통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학에서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기대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개인상담보다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시에 중점을 두고, 상담전문가 양성, 일반학생들에게 예방교육 실시, 무료 운영, 올바른 부모 육성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등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표 11>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요구도 및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기대<단위:N(%)>

변인		범주	빈도(%)
서비스 제공 방법	면접상담 시(N=129)	학생들을 기관에 보내서 서비스 제공자가 학교로 출장 나와서	51(37) 78(56.5)
	집단상담 또는 집단교육시(N=133)	학생들을 기관에 보내서 서비스 제공자가 학교로 출장 나와서	61(44.2) 72(52.2)
* 대학에서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대학은 다른 지역사회 기관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는가?		① 청소년보다는 올바른 부모 육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② 개인상담보다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실시에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③ 상담전문가 양성 기관이 되어야 한다 ④ 일선 교사가 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홍보, 실행에 함께 참여했으면 한다. ⑤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상담자가 상담을 해 주었으면 한다. ⑥ 문제 학생 위주보다는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해 주었으면 한다. ⑦ 대학생 언니, 오빠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대학 내에서의 체육활동, 그룹별 지도 등으로 정서순환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⑧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 ⑨ 심층 면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란다. ⑩ 학교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바란다. ⑪ 유료보다 무료로 운영해 준다면 자발적 참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⑫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	

* 개방형질문 문항

이상과 같이 학교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부적응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학교 현장에 개입하여 상담과 교육 서비스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일선 중·고등학교의 상담실태와 지역사회 상담관련 기관과의 연계실태와 만족도, 외부기관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담실 이외 과중한 업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 '열악한 상담실 환경', '학교 내 상담실에 대한 지원과 관심부족', '일반교사들의 상담실에 대한 인식부족' 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상담활동으로는 개인상담에서 진로지도(66.7%)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집단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에서 심성프로그램(50%), 진로탐색 프로그램(41.3%), 성교육 프로그램(31.9%) 순으로, 검사활동에서는 지능검사(63.8%), 진로적성검사(60.9%) 순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셋째,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영

역에서는 친구문제(97.1%), 이성(87.7), 집단따돌림(79.7%)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무단결석(85.5%), 폭력(82.6%), 가출(80.4%)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성 지식의 부재(64.5%), 성충동(47.1%), 성폭행(44.2%)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부모와의 갈등(90.6%), 과잉기대 부모(72.5%), 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64.5%)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성적부진(91.3%), 공부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80.4%), 진학(79.7%) 순으로, 심리적 문제영역에서는 성격장애(73.9%), 불안(65.2%), 행동장애(62.3%) 순으로 상담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당 개인 상담 횟수는 거의 못한다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9.9%는 1~2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상담활동 시 어려운 점으로는 수업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상담하기 어렵다(82.6%), 어느 정도까지 학생을 도와주어야 할 지 모르겠다(63%), 상담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57.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상담교사로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충고·조언(91.3%), 문제행동 예방활동(69.6%), 진로지도(65.2%), 정보제공 중심의 면담(58%) 순으로 나타났고, 심리검사(39.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외부기관과의 연계실태를 살펴보면 주로 어머니 자원봉사단(25.4%), 시·군·구 청소년상담실(18.8%), 사회단체(20.3%) 등으로 국한되어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유로는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 불충분(76.8%), 관련 기관 이용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64.5%) 순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외부기관의 도움은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가 각각 48.6%로 나타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홉째, 외부 상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로는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정서적 우울감, 학습의욕 상실,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갈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 받고 싶다'가 85.5%로 가장 높았고, '징계처분을 받지는 않았으나, 부적응의 위험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67.4%), '징계처분을 받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65.9%)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고 싶은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영역에서는 이성관계(83.3%), 집단따돌림(79%), 친구문제(68.8%) 순으로, 비행영역에서는 가출(79%), 흡연(76.8%), 폭력(76.1%), 무단결석(68.1%) 순으로, 성영역에서는 성지식의 부재(78.3%), 성폭행(65.9%), 성충동(60.9%) 순으로, 가정문제 영역에서는 부모와의 갈등(73.2%),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갈등(65.9%), 편부/편모로 인한 심리적 갈등(62.3%), 과잉기대 부모(59.4%) 순으로, 진로 및 학습문제 영역에서는 공부하

기가 싫다(71%), 성적부진(67.4%), 진학(65.2%) 순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문제 영역에서는 성격장애(76.8%), 행동장애(68.1%), 불안(62.3%) 순으로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한 번째,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고 싶은 프로그램은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는 성(性) 프로그램(68.1%), PC 중독 예방 프로그램(65.9%), 흡연예방 금연 프로그램(62.3%), 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60.9%), 좋은 친구 되어주기 프로그램(6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학급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교육(72.5%), 진로탐색 교육(68.8%), PC 중독 예방 교육(67.4%),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65.9%),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교육(65.9%)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였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자녀 이해하기 교육(87%), 자녀 흡연·음주 예방 지도 교육(73.2%), 자녀 진로지도 교육(71.7%), 자녀 성교육 지도 교육(71%) 순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청소년 상담과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안

위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학교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학교현장에서의 상담과 교육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과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서 외부관련기관 특히 풍부한 학문적 성과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며, 대학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적극적인 홍보전략 세우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외부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상담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이용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많으므로,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청소년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지역의 중·고등학교 상담관련 부서의 부장연수 시 대학의 상담기관 안내문을 배포하여 학교에 홍보하고,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학교의 등록금 고지서나 가정통신문에 대학의 상담기관 전화번호 등을 인쇄하여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또한 교육청 등 지역사회 행정기관, 민간조직, 언론(지역케이블 TV,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상담은 대개 진로지도, 어머니 자원 봉사단을 통한 심성프로그램, 지능검사 등의 형식적이고 협소한 부분에서만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

공하고 있는 것은 주로 충고와 조언, 진로지도, 예방활동, 정보 제공 중심이었으며,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성, PC 중독, 흡연, 집단따돌림 등에서 상담과 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상담내용으로는 대인관계영역에서 이성관계, 집단따돌림, 친구문제, 성영역에서 성지식의 부재, 진로 및 학습문제영역에서 '공부하기가 싫다' 등의 항목이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에 청소년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심리상태와 행동변화를 위한 심층적인 상담과 교육,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성(性), PC중독 예방, 흡연 예방, 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이 외에도 건강한 이성관계 형성, 좋은 친구 되어주기,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3) 부적응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문제 학생 외에도 일반학생과 부적응의 위험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건강한 성(性), PC중독 예방, 흡연 예방, 집단 따돌림 예방, 건강한 이성관계 형성, 좋은 친구 되어주기,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등과 같이 일반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실시 가능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부적응 예방차원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담이란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 상담과 교육을 부모교육, 가족상담으로 확대 실시

본 연구 결과에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녀 이해하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았음을 볼 때,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외부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상담내용 중 가정적 문제영역에서 '부모와의 갈등' 문제가 가장 많이 도움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그 외 가출 등의 비행영역, 대인관계영역, 심리적 문제영역 등에서도 가정적 요인이 많은 작용을 하였을 것이라 사료되어 부모 및 가족들도 참여시키는 가족상담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끊임없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훈련

대학은 학생 스스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또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쓰이지 않는 인적자원을 탐색하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교과목 등의 개설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시켜 상담인력(특히 대학원 과정이 없고 학부과정만 있는 경우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는 가족상담현장실습, 가족생활교육현장실습 교과목 외에도 2002년도 교육과정에서 '청소년 집단상담과 교육'이라는 교과목을 신설하여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 실제적인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을 통해 받은 지식과 교육을 사회에 환원하는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현장경험은 현재 생활과학 대학 내의 아동·가족 전공이나 가족·소비자 전공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족학 전공자들을 한국가족관계학회와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가족상담사, 가족생활교육사(유영주, 2001)로 양성해 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고, 자격증을 받기 위한 경력도 쌓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대한 참여능력과 지역문제에 대한 처리능력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되는 건강한 인성을 갖게 될 것이며, 가족상담사나 가족생활교육사 등 가족학 분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를 높이고, 졸업 후 현장경험이 취업으로 연결되어 전공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중·고등학교 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어 나갈 때는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와 파트너쉽(partnership)의 실천이라는(박창엽, 1998) 두 가지 원칙에서 맺어 나갈 수 있다. 여기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과 학교 청소년들에게 대학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원봉사란 그들의 자진성, 무보수, 봉사정신에 기초해 훈련받은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것이며, 파트너쉽 활동이란 대학의 상담기관과 중·고등학교간에 함께 협조 혹은 제휴하여 학교의 청소년 상담과 교육에 참여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고등학교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 학계와 현장을 연결함으로써 상담과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7) 지역사회 상담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대학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관들과 더불어 해결해 가야 한다. 즉 지역의 상담관련 유관기관과 서로 유기적인 연계·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방법 등 서로의 know-how를 공유하

고, 재정적 지출 또는 인적자원을 함께 나누는 등 각자의 system을 상호 보완하면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상담관련 유관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를 할 수 있는 풍부한 인적 자원과 학문연구결과가 있는 대학의 상담기관에 청소년 상담 및 교육을 의뢰해 오거나, 대학의 상담기관에서 우울, 불안, 성격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영역에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신과 진료센터 등과 같이 특정영역에서의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한다든가, 학습문제영역, 성역역 등과 같이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자문이나 시설 및 자료 등의 대여를 위해 협조를 구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함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학과 지역사회 상담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은 지역사회 상담관련 기관들에 대학의 학과와 학생들이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경험을 쌓은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 기대된다.

실제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와 가족상담교육실에서는 상담 유관기관인 창원시 사회복지상담소의 의뢰로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적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7~8월 동안 한국심리자문연구소와 연계하여 대학생들에게 학습중합진단검사를 활용한 학습상담방법에 대해 교육, 훈련시켜서 창원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방법에 대한 진단과 상담활동을 할 계획이며, 10월경에는 성상담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내일 청소년 상담소와 연계하여 성교육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이동버스를 이용해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활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대학이 지역사회에 청소년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지식의 보존자로서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봉사를 통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이광자, 1997), 더욱이 지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것은 대학 자체의 새로운 지식개발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학이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가족을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 자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킴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대학교 개방을 통한 대학교 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원시 소재 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학교 상담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담관련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학교 상담실태와

외부기관에의 서비스 요구도가 조사되었는데, 학교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상담서비스의 주요 대상인 학생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학교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학교 상담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상담과 교육의 객체가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에 대한 욕구조사가 추후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일선 중·고등학교에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둘러싼 상담관련기관과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연계적 서비스 모형 개발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추후 연구로 계언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의 청소년 상담과 교육 서비스 제공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청소년과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 대학도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고등학교 현장 등 지역사회에 배출되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일 : 2002년 3월 07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6월 12일

【참 고 문 헌】

- 김기태 외 9인(1996). 학교 부적응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문제 해결 프로그램 연구, *사회복지 연구* 6호, 부산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 김연옥 · 이상균(1998). 가정-학교-지역사회 원조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전략 개발. *한국아동복지학* 6. 9-39.
- 김진희 외 3인(1996). **학교상담체제발전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동아일보(2001a). 문제학생 1년 이내 등교 금지, 2001년 7월 11일자.
- 동아일보(2001b). 초등생 중퇴 10년새 10배로. 2001년 10월 17일자.
- 매일경제(2001). 서울시 중고생 자퇴율 높아. 2001년 12월 23일자.
- 박경애 외 2인(1999). **학교상담실태 및 모형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창엽(1998).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방안 탐색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 이상균(1998). 청소년기 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35. 한국사회복지학회. 205-229.
- 오수연(1999).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과업중심모형을 적용하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2001). 가족학의 발전전략,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동혁(1999). 학교상담체제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의 질적 차이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심봉(2000).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사회사업개선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종명(1997).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육성체계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자(1997). 지역사회봉사의 체계화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여성연구논총 제 12집**.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 천혜숙(1999).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의식과 욕구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Elias, M.J.(1997). 사회적, 학업적, 성공과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청소년 인성교육의 실제**.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53-84.
- Aycock, David W. (1989). Educating the whole person: A rationale for counseling service of the christian college campu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8. 38-44.
- Borders, L.D. & Drury, S.M.(1992). Comprehensive school counseling programs: A review for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487-498.
- Kurtz, P.D. & Barth, R.P. (1989). Parent involvement: Cornerstone of school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4. 407-413.
- Schmidt, John J.(1996). *Counseling in school*. Boston:Allyn and Bacon.
- Turner, F.J. & Strean, H.S.(1983). *The practice of social work in school*. New York: The Free Press.
- <http://living.snu.ac.kr/~childfamily>
- <http://home.hanmir.com/~khfamily>
- <http://altair.chonnam.ac.kr/~homg/professor/family>
- <http://apollo.mokpo.ac.kr/~coun>
- <http://lotus.silla.ac.kr/~cfct>
- <http://sarim.changwon.ac.kr/~ryukh>

<부록> 가족학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대학교

대학교 명	상담기관 명	사이트 주소	특징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상담기관	아동가족상담실	http://living.snu.ac.kr/~childfamily	목적: 가정생활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 주요 활동: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상담내용: 자녀양육, 교육문제, 배우자선택, 결혼생활관련문제, 기타 가족관계문제 등을 상담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부설 상담기관	경희가족상담 교육센터	http://home.hanmir.com/~khfamily	목적: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각종 가족문제를 상담하고 가족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주요활동: 면접·전화·사이버 상담, 가족생활교육 상담 및 교육 내용: 결혼준비상담, 부부관계상담, 부모자녀관계상담, 노인문제 및 고부관계상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부부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고부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족상담실	http://altair.chonnam.ac.kr/~homg/professor/family	목적: 가정생활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 주요활동: 인터넷 상담 상담내용: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문제, 배우자 선택, 성문제, 청소년 문제, 결혼생활관련문제, 기타 가족관계 문제
목포대학교 소비자이동주거학과	가족상담실	http://apollo.mokpo.ac.kr/~coun	주요활동: 인터넷 상담 등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학과 부설기관	가족상담센터	http://lotus.silla.ac.kr/~cfct	목적: 가족문제에 대한 연구와 상담활동을 통해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 교육 주요활동: 가족상담, 부부상담(성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가족상담워크샵, 가족상담학과 대학원 실습, 가족강화프로그램 개발, 임상연구, 저서·역서 발간 상담 내용: 가족간의 의사소통 문제, 부부갈등(성문제), 부모자녀갈등, 부부·고부갈등, 이혼·재혼가족의 문제, 아동의 행동·정서장애, 청소년 성문제, 학교·직장 부적응, 학교·가정내 폭력, 청소년가출·비행, 알콜·약물남용, 우울증·불안증, 편부모 가족문제, 노인가족문제 등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가족상담교육실	http://sarim.changwon.ac.kr/~ryukh	목적: 지역사회의 건강한 청소년과 가족을 양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 및 교육활동 주요활동: 면접상담, 청소년 집단상담, 청소년 적응교육, 초·중·고등학교 출장 교육, 각종검사 상담내용: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문제 등 상담